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서 한국불교 알린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8월 1~12일, 32년만에 韓서 개최
불교연맹, 법당·푸드하우스 운영
성행 스님 "한국불교 세계 알릴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계획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6월 12일 종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연맹의 합동 야영대회다. 14~18세 스카우트 대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 각국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의 장을 펼친다.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를 주제로 152개국에서 14~18세 청소년 약 4만 5000명이 참가 예정인 이번 새만금 대회에서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은 잼버리 법당과 서브 캠프, 푸드하우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회장 내에 설치될 '잼버리 법당'은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운영된다. 단주 만들기, 소원 연꽃등, 풍경 만들기, 나만의 상상붓다 그리기, 함께 완성하는 소원탑 그리기, 108배 챌린지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전통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포교사 등이 한국어와 영어, 불어로 전시물 해설 등을 진행한다. 참가국 예불 체험도 가능하다. 오전과 오후 하루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몽골과 대만 등의 예불을 경험해볼 수 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캠프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하루 일정을 마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놀이 마당에서는 각국의 전통문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재미있는 한국 전통놀이를 알릴 계획이다.

잼버리대회 참가자와 일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하우스에는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K-푸드가 준비됐다. 메뉴는 잼버리 대회에서 지향하는 스카우트 정신을 담고 불교연맹의 정체성을 고려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인종,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식품을 재료로 한 대중적인 음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기업인 베지푸드 업체를 선정, 식재료 협의 중에 있으며 베지핫도그, 떡볶이, 비빔라면, 냉면, 주먹밥 등이 메뉴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연맹장 성행 스님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이자 청소년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불교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5회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부지(8.84㎢)에서 개최된다. 부지면적은 축구장 1200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 정부서울청사 대지면적의 340배에 달한다. 올해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32년만에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한국스카우트운동이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라 상징성과 시의성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발달장애인 참사 사슬 끊는 지원체계 촉구

조계종 사노위·장애부모연대
용산역~대통령집무실 오체투지
600명 참가…간절한 염원 표현
"장애인 위한 희망 싹 틔울 것"



사노위는 6월 14일 용산역에서 대통령집무실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했다.

"더 이상 죽이고 죽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몸을 던집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는 6월 14일 서울 용산역에서 대통령집무실까지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노위원 스님과 부모연대 회원 등 600여 명은 이날 용산역을 출발,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하며 더 이상 참혹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오체투지에 앞서 동참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10건 이상이며 올해에만 벌써 5건에 달한다. 극도의 배제와 차별 속에서 무거운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여는 발원으로 단상에 오른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오체투지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체투지는 종교를 너머 우리 사회의 부조리하고 부당함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무언의 저항이자 희망의 몸짓"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참극을 멈추고자 한다면, 그들의 한없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자 한다면,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의 이기심을 참회해야한다고도 했다. 지몽 스님은 "오늘 우리는 오체투지로 하루에도 수십번 삶과 죽음을 오가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의 일상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지난날을 참회해야 한다"면서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을 참회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싹도 틔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체투지에 앞서 발표된 결의문에서 더 이상 참혹한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들은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구축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자립과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날 600여 명의 동참자들은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산역 3번 출구에서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일부 동참자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 포교원 캠페인 추진

'전법 ON' 포스터·스티커 제작, 전국 배포

지난달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부처님 법 전하겠다'는 포교 원력을 선포한 조계종 포교원이 이를 뒷받침할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포교원(원장 범해)은 "전법이 포교임을 기치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캠페인 일환으로 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주요사찰, 전법중심도량, 포교·신도단체 등 200곳에 배포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포교원이 공개한 '전법 ON' 포스터는 부드러운 그림체의 부처님 아래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순례 이후 강조한 원력 '부처님 법 전합시다' 문구를 넣었다. 또한 스티커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다양한 크기를 마련했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출시한 '반야의 야단법석'도 함께 선보였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 실천에 관한 영상과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고양 법문사, 이전 개원 법회 봉행

6월 10일, 청화 스님 등 동참
일문 스님 "서원 밭 되는 참도량"



고양 법문사(주지 일문)는 6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법문사 이전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전 개원법회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거점 도량이 되길 발원하는 자리였다.

주지 일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마련한 법문사 도량이 서원의 밭이 되며, 식량이 되며, 서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참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석에 오른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법문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량, 기쁨을 창도하는 도량이 되길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량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문 스님은 대표로 봉독한 발원문에서 △생명이 다하도록 전법하고 △법륜이 항상 굴러 진리가 빛을 발하도록 수행하고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자비향을 완성하도록 정진에 정진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652)에 위치한 법문사는 법당과 공양간, 쉼터 등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열린공간을 갖추고 있다. 고양=임은호 기자

법문사에 불교계 제1호 햇빛발전소 설치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 고양시에 허가 신청

고양 법문사(주지 일문)에 불교계 제1호 햇빛발전소가 설치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부설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사장 종범)은 최근 고양시로부터 42.48kw용량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법문사에 제 1호 발전소 '비로자나고양햇빛발전소'를 설치키로 했다.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찰이나 불자 가정에서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RE100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사장 종범 스님은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이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720-1654

임은호 기자

